

### 1 20대 총선서 더민주 참패 2석에 그쳐... 국민의당 7석, 새누리 1석 배출



지난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얻는데 그쳐 참패했다. 이로 인해 전북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국민의당 후보는 도내 선거구 중 7석이 당선해 녹색혁명을 일으켰다. 특히 1996년 15대 총선 이후 불모지나 다름없던 새누리당에서 정운천 후보(현, 개혁보수신당(가칭))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 창당이 예고 될 비박계 신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합류했다.

### 3 전·현직 단체장들 비리로 법의 심판

전북지역 전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비리로 연루돼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고창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16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8일 법정구속 됐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도 군에서 발주한 35억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금 60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 5 사상 유례없는 풍년 속에 쌀값 폭락... 농민들 '한숨만'

21년만에 산지 쌀값이 12만원대로 떨어져 풍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보다 5배나 많은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풀고 올해 수요 초과분을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기는 등 쌀값 방어에 나섰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쌀생산조정제' 도입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폭락하는 쌀값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농민들의 원망은 높아만 가고 있다.



### 7 누리예산 편성 놓고 갈등 심화, 올해 전국 유일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지역 정치권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특히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급기야 전북도가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도의회도 올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고 교육청에 동의를 구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은 원칙을 끝까지 고집했다.

### 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 지역경제 '휘청'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9년 가동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최근 일감 부족으로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해였다. 군산조선소는 추가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 이상 내년 상반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산업 붕괴는 물론 6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곳 조선소는 군산 지역 전체 수출의 20%(전북 9%), 연간 가계소비지출 600억원, 지역 제조업 총생산 25.6%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 2 도내 AI 확산... 계란 대란 이어 닭고기 수급 초비상

지난 11월 김제의 한 육용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AI는 정읍과 부안,고창 등 전북의 서남부권 지역으로 확산됐다. 또한 김제 용지의 신란계 농가도 AI 확산을 피하지 못했다. 전북지역에서는 114호 농가에서 244만8,000수의 오리나 닭들이 매몰처분을 받았다. AI가 불거지면서 군산과 김제, 임실 등 도내 곳곳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됐고, 수렵장 운영도 전면 중단됐다.



### 4 올 여름 기록적 폭염... 도민들 '기진맥진'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운 폭염으로 전북 지역이 가마솥더위에 몸살을 앓았다. 한낮 35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에 비 소식도 없이 2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에 전북에서는 100여명이 훌쩍 넘는 온열질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폭염은 전북지역 농가는 4409ha에 달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고, 가축 100만 마리가 폐사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해 전기사용량도 크게 늘어 도민들은 전기료 누진세 폭탄에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6 나라슈퍼·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잇단 무죄 판결



일명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으로 살인강도 혐의를 받은 3명의 청년이 17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 1999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77)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 시킨 뒤, 금품 20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들의 형이 확정 된 뒤 진범이 체포됐지만 진술 번복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또,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최모(32)씨도 재심서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 8 전북현대, 10년 만에 ACL 우승... 도민들 자긍심 높여

전북현대가 '2016 AFC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승점삭감으로 인해 아쉽게 리그 우승을 놓친 전북은 지난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알 아인과의 2경기에서 최종 스코어 2대 1로 아시아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했다. 전북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최종 우승은 2006년 이후 10년만이다. 리그를 선도하고 있는 전북은 이번 시즌 역대 최초로 홈 관중 40만 명을 돌파하며 여타 리그팀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 10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전북에서 타오른 촛불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성난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다. 전북은 모두 7번의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총경로 일대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압박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 12월 4일에는 무려 2만 5000명의 도민이 운집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은 매주 토요일마다 타오르고 있다.



jbgc 전북글로벌게임센터

Jeonbuk Global Game Center

전라북도 스타게임기업 육성의 요람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  
글로벌 비즈니스 확산지원  
기능성게임산업 기반조성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Jeollabukdo Culture Contents Industry Agency